

목포 시내버스 또 멈췄다...연료비 23억 체납

담보 제공 거부해 가스 공급 중단...한 달 만에 '울스름' 전세버스 등 비상수송차량 58대 긴급 투입 불편 최소화

목포시내버스가 한 달도 안돼 또 다시 멈춰 서면 서 지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목포시내버스 회사 태원여객·유진운수 소속 버스 150여대가 12일 오전 5시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이들 버스회사에서는 노조가 지난 10월18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3.2% 임금 인상과 만근일수 조정에 따른 6개월의 임금보전분 적용에 합의하고 지난달 16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내버스회사가 버스연료인 가

스비를 장기간 미납하면서 가스 공급이 중단돼 버스 운행이 어렵게 됐다.

목포시내버스 연료는 목포도시가스에서 (주)그린CNG 충전소에 공급한 뒤 (주)그린CNG 충전소가 시내버스회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목포도시가스는 최근 가스비 미납으로 인해 가스 공급중단을 예고했으며, (주)그린CNG 충전소와 시내버스회사는 미납금 23억원을 내면 6월까지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목포도시가스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목포도시가스는 채권 확보를 위해 (주)

CNG충전소의 주채무자인 시내버스회사에 상환에 대한 공중 또는 담보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목포도시가스는 지난 6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예고대로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가스 공급중단을 결정했다.

목포시는 교통약자인 학생의 등하교와 동절기 한파를 고려해 공급중단 유예를 요청했으나 목포도시가스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거절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11개 주요 시내노선(남악·오룡 제외)에 목포시가 마련한 전세버스 52대, 관용버스 2대, 낭만버스 4대 등 총 58대의 비상수송차량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

당초 시는 지난 4월 준공영제운영을 통해 내년 1

월까지 굴곡·중복 노선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운영방식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목포형 준공영제를 설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시내버스 노조 파업 철회를 골자로 한 합의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이달 말까지 시에 제시할 경영개선(안)과 연계하고 시민의 견을 수렴·토론하기 위해 준공영제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별도로 공영제운영을 1월초부터 병행·추진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사유인 가스비 체부에 대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버스회사 측에 요구했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체 이동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탄소 ZERO섬' 조성 도초·비금도 전기버스 운행

신안군이 '2050 탄소중립' (탄소 Zero) 정책을 부응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 보존을 위해 친환경 전기버스(사진)를 도입했다.

신안군은 최근 서남문대교로 연결된 비금도와 도초도에 15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과 소음이 없는 친환경 전기버스 7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도초도와 비금도는 28개 노선에 7대의 공영버스(경유 연료사용)가 운행됐다.

군은 지난해에 관내 경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공영버스 69대에 대한 연차적인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 지난 3월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버스 충전소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차량구입·등록 절차 등을 거쳤다.

전기버스는 기존 공영버스보다 실내 공간이 넓고, 승차감 향상과 소음이 없을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배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90억을 투자해 친환경 전기버스 32대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전기버스 1대 도입 시 승용차 131대분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있는 만큼 '탄소 ZERO섬'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 e-모빌리티 기업들 동남아 시장 진출 견결음

베트남 국제 농기계 및 농업기술 엑스포 참가 수출 방안 모색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빈증성 한인상공인협의회 협약

영광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된 '2022 베트남 국제 농기계 및 농업기술 엑스포'에 영광 e-모빌리티 기업들이 참여해 관내에서 생산된 e-모빌리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홍보와 베트남-한국 기업 간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022 베트남 국제 농기계 및 농업기술 엑스포(2022 VIETNAM GROWTECH EXPO)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산업통상부, 농업농촌개발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약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농기계, 농업기술, 스마트농업 분야에 대해 전시했다.

이번 엑스포에는 지난 10월 하노이 한류박람회

에 이어 지속적으로 해외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산화율 90%의 전기이륜차·삼륜차 생산 전문업체인 ㈜에이치비, 고성능 강판 등을 생산하고 있는 ㈜하나스틸, 펜스 생산업체인 ㈜가야산업과 군사능공단지 기업인 플라스틱 합성피혁 생산업체 파이프 로가 참여하여 베트남 수출을 위한 판로 개척 방안을 모색했다.

엑스포 참석 첫날인 7일에는 참여한 기업들을 대표하여 영광군 대마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베트남 빈증성 한인상공인협의회가 e-모빌리티 기업의 빈증성 진출 및 투자를 위한 지원과 공동협력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 베트남 국제 농기계 및 농업기술 엑스포'에 참여한 영광 e-모빌리티 기업 관계자들.

영광군 관계자는 "국고사업 참여 등을 통해 국산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관내 농업 관련 e-모빌리티 제품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시, 일자리사업 참여 우수기업들과 소통

애로사항 청취·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조선업종 인력 비자 요건 개선 등 건의

목포시가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과 함께 산단 내 중소기업, 취업 지원 유관기관 등 20여 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열린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취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관내 주요 일자리유관기관인 전남고용노동연구원, 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통합센터 등이 수행 중인 취업 알선사업, 창업지원사업, 일자리교육훈련사업, 신중년일자리사업 등을 소개하는 한편 대양·산정·삼진·세라믹산업단지 및 일자리사업 참여 우수기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업체들은 시의 각종 일자리사업이 양질의 인력 채용 및 재직자 장기근속 유지 등에 많은 도움이 된 다면서도 인력난을 호소하며 ▲청년 채용 및 근속 장려 지원 정책 강화 ▲조선업종 관련 외국인 인력의 비자 요건 개선 ▲대양산단 근로자 출퇴근 지원 버스 노선 변경 및 증차 등을 건의했다.

김영숙 경제산업국장장은 "목포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을



목포시는 지난 7일 일자리사업 참여 우수기업과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청취하며 소통했는데 청년정책 지원강화, 청년·신중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조선업종 인력 비자 등 일자리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설도마을이 해양수산부 바다가꿈 프로젝트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여한 김광옥(왼쪽 두번째) 설도 어촌계장.

영광 염산면 설도마을, 바다가꿈 프로젝트 '우수상'

해수부 10곳 선정

영광군 염산면 설도마을이 해양수산부 '2022년 바다가꿈 프로젝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바다가꿈 프로젝트는 어촌·바닷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촌환경개선 프로젝트다.

염산면 설도마을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과 주민들이 수산물관리센터 앞 야외 테이블에 공공미술 벽화로 경관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정화활동과 인양쓰레기 수렴 수매 참여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설도마을과 함께 선정된 우수사례 10곳에는 바다가꿈 인증패가 교부되며,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 문화의 파도 시민과 출렁이다'

시, 13~14일 목포문화도시 문화향구페스타 신안비치호텔서 법정문화도시 1년 성과 홍보

목포시가 13~14일 신안비치호텔에서 '2022 목포문화도시 문화향구페스타'를 개최한다.

'목포 문화의 파도 시민과 출렁이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목포시가 지난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뒤 올해 진행한 1차년도 문화도시 22개 분야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학술행사, 성과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3일에는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도시의 방향, 정책, 성과창출의 의미', '성공적인 문화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 '문화도시 목포! 가치 같이' 등의 문화도시 전문가 초청 학술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14일에는 '문화갯물학교와 전남지역 5개대학 대

학생 로컬 관광크리에이터 워크숍', 토크콘서트 '목포문화예술을 말한다'가 진행되며 목포 출신 문학인들의 시를 노래로 작사한 '목포 시를 노래하다'와 목포 문화의 날 운영 성과물 등이 시연되며 생활장인들의 솜씨 체험, 장인들 공예품 배우기, 차 문화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문화 체험은 13일, 14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목포에 대해 시민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목포의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올해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채본부장 moon@

위기가구를 찾아라

진도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진도군이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섰다.

진도군에 따르면 담양 마을 공무원과 이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 인적 안전망 협조 체계를 활용해 내년 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날은 공무원 전체 직원이 관내 전체 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다.

집중 발굴 대상은 계절형 실업, 한파 등으로 발생되는 취약계층을 비롯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또 읍·면 중심의 현장점검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 시 각종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도·이중수 js7777@kwangju.co.kr

완도군 조건불리지역 어가 수산직불금 30억 지급

3766 어가당 80만원

완도군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완도지역 어민 3766 어가에 수산직불금 30억원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섬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어촌 인력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으로 완도읍과 약산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이 해당된다.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 경영체

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이다.

완도군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3955 어가를 대상으로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3766 어가를 확정했으며 어가당 80만원씩 지급한다.

직불금의 2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수산직불금이 어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부터는 영세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